

한국어 선어말 어미 ‘-시-’의 사물 높임 현상과 공손 전략적 사용

최성화

(한국의국어대학교)

Choi, Sunghwa. (2019). The inanimate subject honorification of the pre-final ending '-si-' and its strategic usage related to the politeness theor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4), 37-5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ceptability of the emerging phenomenon of the Korean pre-final ending '-si-', in which '-si-' seemingly respects inanimate subjects, with the experimental method widely used in the areas of experimental syntax.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rated the acceptability of various sentences, including inanimate subject sentences with or without the honorific marker '-si-'. Results in experiment 1 showed violation effect on the use of '-si-' in sentences with inanimate subjects comparing to human, respectable subjects.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Korean speakers have not accepted this new usage of '-si-' as grammatical. We also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inanimate subject honorific '-si-' is used for pragmatic reasons, specifically, face-saving motives in Brown and Levinson's politeness theory. In experiment 2, the acceptability of the use of '-si-' in inanimate subject sentences in face-threatening contexts is tested. The findings of this experiment show that the ungrammatical usage of the ending '-si-' is likely to be a strategic usage to preserve the face between conversation participants.

주제어(Key Words): 선어말 어미 ‘-시-’(pre-final ending ‘-si-’), 사물 주체 높임(inanimate subject honorification), 청자 높임(hearer honorification), 수용성 판단(acceptability judgement), 거절 화행(refusal speech act),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 공손성(politeness)

1. 머리말

한국어의 '-시-'는 일반적으로 주어 혹은 주체를 높이는 문법적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 사물이 주어로 쓰인 문장에서 '-시-'가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상거래 상황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백화점 높임 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규범적 입장에서는 잘못된 용법으로 여기고 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상대를 대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민지혜, 2014) 이러한 용법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있어 왔다.(목정수, 2013; 박석준, 2002, 2004; 이두원, 2014; 이태호, 2012; 이수연, 2012; 이숙의, 2015; 이정복, 2006, 2010)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것이 새로운 쓰임으로 한국어에 편입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진 문법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어 문장들에 대한 모어 화자의 수용성 판단을 이용해 사물 높임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해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자 개인의 직관이나 이론적 설명에 따라 사물 높임 '-시-'가 가진 문법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문법성 판단이 연구자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화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설문을 통해 수용성 판단을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했으나 충분한 형식화를 통해 통계적 검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은혜, 2016; 민지혜, 2014; 백수연,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실험 통사론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실험적으로 형식화된 수용성 판단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사물 높임 사물 높임 '-시-'가 쓰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체면 위협의 완화라는 공손성 이론에 기반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제 한국인 화자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그동안 사물 높임 '-시-'의 쓰임에 대해 학자들이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분류해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실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물 높임 '-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개의 수용성 판단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수용성 판단 과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이에 대한 논의를 기술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적 논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물 높임 '-시-'에 대한 논의

'-시-'의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는 어휘적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은 문법 형태소이며, 다른 어미들과 달리 '-시-'의 사용에 오용의 용례가 많아서 '-시-'의 정확한 문법 기술이 어려운데다,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중 주어 구문 등의 문장 유형들에 대한 통사적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석준, 2002).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는 문장의 주어 혹은 주체라 불리는 대상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문법적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시-'는 문장의 주어를 판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주체 높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의 쓰임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물을 높이는 '-시-'이다.

- (1) a. 아메리카노 한잔 나오셨습니다.
- b. 총 금액이 삼 만원이세요.
- c.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으세요.

(1)과 같은 예문들은 서술어의 직접적인 주어라, 상거래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물이나 개념들이며, 주어가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접 존재 확장이라고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비문법적인 예외현상이라고 여겨져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쓰임이 상거래 상황에서 지속적이며 빈번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이를 설명하려는 여러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정복(2006), 박석준(2002, 2004) 이래호(2012), 이수연(2012), 이숙의(2015) 등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이것이 비록 비문법적이긴 하지만, 화용적 요소로서 '-시-'가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목정수(2013), 이두원(2014) 등은 이것이 여전히 문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영역 내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정복(2006)은 먼저 '-시-'의 사용에 작용하는 화자의 의도와 전략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를 해석하게 되면 수많은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래서 '-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통사적 관점에서 높임 자질을 가진 언어 형식들의 내적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대신 사람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화자의 높임 의지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장에는 주어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자가 높여 대우하고자 하는 '주체'가 존재하며, 이것은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인물이자 화자의 높임 의지의 대상이라 하였다. 이정복(2006)은 이것을 가리켜 '상황 주체'로 명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는 동작이나 상태, 상황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설명을 사물 높임 '-시-'에도 적용한다. (1)과 같이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도 화자가 높여 대우하려는 '상황 주체'를 위해 '-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정복(2006)은 문장에서 주어 성분과 연관되어 쓰이는 것이 '-시-'의 근본적인 기능은 아니며, '-시-'의 다양한 쓰임과 해석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 '-시-'가 '언어형식'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주체'를 높이는 '화용적 접사'라는 주장에 이른다.

박석준(2002, 2004)에서는 (1)과 같은 사물 높임 문장들을 문법적 오류로 처리하되, '-시-'의 기능이 화용적으로 확산되어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 본다. 박석준(2002, 2004)은 '-시-'가 문장의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 대해 존대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드러내어 공손함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렇게 사람이 아닌 대상을 높이는 경우가 청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와 같은 용례가 대부분 청자를 초점으로 하는 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시-'가 사용되는 통사적 특성에 맞추어 이 현상을 설명한다. 즉, '-시-'가 사용되는 '주어-서술어' 구조가 '청자-청자를 향한 발화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래호(2012)의 경우에는 주체 높임 '-시-'의 기능을 부인하지 않되, 이것이 청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쓰임이 확대되었

다고 본다. 그는 먼저 '-시-'가 애초에 청자도 존대할 수 있다는 임흥빈(1985)의 주장을 인용한다. 임흥빈(1985)은 '-시-' 자체에는 청자를 존대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것은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청자를 존대한다고 보여지는 '-시-' 들은 특히 호격어를 상정할 수 있으며, 대면 상황에서만 발화가 가능한 문장들에서 잘 나타난다.

- (2) a. 어디십니까?
 b. 영감님 댁은 이 근처이십니까?
 c. 서울에서 곧장 내려오는 길이세요?
 d. 선생님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래호, 2012, p. 152)

(2)에 나타나는 문장들은 주어를 상정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주어-서술어 관계로 '-시-'의 쓰임을 설명하기 어렵다. 대신 호격어로 상정할 수 있는, '전화하신 분', '영감님', '선생님' 등이 궁극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래호(2012)의 설명이다. 또한 이런 문장들의 특징은 청자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만 쓰이는 문장들이며, 청자 존대의 '-시-'는 대면 발화가 아니면 쓰일 수 없다.

청자 존대의 또 다른 증거로 이래호(2012)는 상위문에서만 '-시-'가 실현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고객의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하위문에서는 '-시-'가 실현되지 않으며, '이 옷', '이것', '색깔' 등이 주어로 나타나는 상위문에서만 '-시-'가 실현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즉, '-시-'는 하위문에서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고, 상위문에서는 주어를 높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청자를 높이는 '-시-'의 쓰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가 청자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것이 전략적 공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먼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상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위성 인식이 중요해지며, 그와 함께 이를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상위성 표시가 중요하다. 또한, 이정복(1996)에서 나타난 '수혜자 공손 전략'을 인용하며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공손이 상대방을 지나치게 존대하는 언어적 공손으로 나타나 '-시-'의 과잉 사용이 나타났다고 본다.

이래호(2012)에 따르면 이러한 '-시-'의 확대는 언어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청자 높임 등급이 단순해지고, '해요체'와 '합쇼체'가 비슷한 정도로 높임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정도가 강한 높임이 필요한 경우에 마땅히 사용할 청자 대우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화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다 '-시-'를 그러한 장치로 끌어다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수연(2012)은 백화점 점원들의 발화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시-'의 사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사물 주체 높임의 사물 주체들은 그 자체로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3) a. 이건 토마토세요.
 b. *이건 토마토셔. (cf. 저분은 할아버지셔. (이수연, 2012, p. 84)

(3a)에서는 청자를 높이는 '-요-'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물을 높이는 '-시-'가 수용될 수 있지만, (3b)의 경우처럼 청자를 높이지 않는 반말의 어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물을 높이는 '-시-'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3a)의 '-시-'의 사용은 '이것은 토마토이다'라는 명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수연(2012)은 이러한 '-시-'의 쓰임 변화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시-'가 주체 높임으로 쓰이면서 높임 대상과 관계된 사태나 사물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2단계에서 들어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청자와의 대화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태를 높이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사물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것이므로 청자를 높여려는 의도가 다른 대상에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수연(2012)은 분석 대상이었던 점원들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 실제 이런 높임법을 사용하는 화자들이 이를 부자연스러우며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6명 중 4명이 이러한 높임법 사용을 통해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나, 친절함과 공손함이 기대되는 서비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높임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즉, 사물 높임 '-시-'는 문법성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사용인 것이다.

앞선 논의들과 다르게, 목정수(2013)와 이두원(2014)의 경우 '-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통사적 관점으로 회귀시킨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화용적 확산이 아닌 통사적 관점에서 적법하게 사용된 문법적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목정수(2013)의 경우 '-시-'의 청자 높임이라 보았던 현상에 대해서 주어 높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가 쓰인 이중주어 구문을 분석하면서 NP1, NP2, V 구조의 이중주어 구문에서 NP1을 주어로 보고 '-시-'가 이를 높인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는 청자 높임으로 보이는 문장들에서도 실은 2인칭 (대)명사 구 NP1이 생략되어 있으며 '-시-'가 높이는 대상은 바로 이 NP1인 것이다. 이것이 생략된 이유는 한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주로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 실현되며 평서문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a. 길이 안 나오시면 좌회전하세요!

b.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손님은) 길이 나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쪽 가세요. (목정수, 2013, pp. 88-90)

그는 (4a)와 같은 문장들에 사실은 대화 상대인 청자와 일치하는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존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4a)는 다시 (4b)와 같은 식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생략된 괄호 속 '손님'이 바로 '-시-'의 높임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주체나 청자 높임을 도입한 기존 논의는 사라지고 실제로는 주어를 높이는 '-시-'만 남게 된다. 이로 인해, 단일한 문법적 기능을 지닌 '-시-'의 존재만 남게 되고, 비규범적이라 여겨졌던 언중들의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이 실은 문법적인 쓰임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두원(2014)의 경우, 영어의 청자 존칭에서 will you...? 와 would you...?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요만을 사용하는 것은 영어의 will you...? 정도의 정중성을 표현하고, '-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would you...? 정도의 정중성을 표현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사물을 높이는 '-시-'의 쓰임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청자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주체와 존칭자질 일치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요'는 청자 존칭 어미로 쓰여 VocP의 핵이 되고, 청자를 가리키는 호격어는 VocP의 Spec이 되어 Spec-VocP의 존칭자질을 점검하여 방출된다. 마찬가지로 TP의 핵이 되는 '-시-'는 Spec-TP의 존칭자질 점검에서 존칭주어를 갖게 되는데, 사물 주체 높임에서는 사물주체가 그 일치치를 이루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호격 높임말과 주체 높임말이 각각 지정어-핵 관계에서 존칭자질에 의해 점검 받을 때, 존칭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5) a. 아버님, proi 어서 오세요.

b. ??아버님, 서울 다녀왔어요?

c.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d. ??*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두원, 2014, pp. 213-217)

그러면서 그는 (5)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는데, (5a)에서 호격과 동지시된 공대명사(pro, null pronominal)가 주어로 쓰일 때, '-시-'가 그 공대명사와 주체 존칭 일치치를 이루어 청자에 대한 정중성을 극대화시키며, 반대로 (5b)와 같이 '-시-'가 쓰이지 않으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물 주체 높임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적용하여, 사물주체 존칭에서 (5d)는 수용적이지 않으며 정중성과 친절함이 격하되는 비문이 되지만, (5c)와 같이 '-시-'가 사용되면 청자 존칭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2.2 사물 높임 '-시-'에 대한 실험적 연구

그러나 이런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 어미의 비규범적 용법에 대해 실험적인 검증을 시도한 사례는 많지 않다. 민지혜(2014), 김은혜(2016), 백수연(2017)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세 논문은 '-시-'에 대한 담화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와 맥락에서 어떤 형태로 사물 높임 '-시-'가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 논문 모두 설문을 통한 일종의 수용성 판단 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두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민지혜(2014)의 경우, 먼저 담화 사례를 분석하여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자료를 네 가지의 양상으로 유형화한 후 이 유형에 맞는 문장들을 선별하여 사물 높임 '-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설문 대상을 실제 서비스업 종사자로 한정하여, 사물 높임 '-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사물 높임 '-시-'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율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나 고객을 대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민지혜(2014)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에

대한 친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서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은혜(2016)의 경우, 먼저 담화 분석을 통해 사물 높임 '-시-'의 문장 사례들을 찾아내었다. 각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수집한 400여 어절 크기의 전자 자료를 바탕으로 사물 높임 '-시-'가 사용된 어절을 조사하였는데, 백화점에서는 20여 어절의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이 관찰되었지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은 주로 '해요체'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담화분석을 하고 있는 다른 두 논문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후, 김은혜(2016)에서는 문장들을 사용하여 5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판단과 불쾌감 정도의 판단을 살피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 화자들은 대체적으로 사물 높임 '-시-'의 사용에 대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으나, 부자연스러움에 비례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백수연(2017)의 경우, 먼저 담화분석을 통해 사물 높임 '-시-'와 함께 주로 쓰이는 술어 구성을 유형화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술어, '~이다' 술어, 존재 술어, '~가 맞다' 술어로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시-'의 중첩이 사용되는 것을 관찰하여 상행위 담화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찰 결과들을 토대로 네 가지 다른 형태적 조건을 구성하고 다시 각 조건 내에서 '-시-'의 중첩, 단일한 사물 높임 '-시-'의 존재, 사물 높임 '-시-'가 없는 것의 세 조건을 구성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친숙성, 공손성, 수용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이는 관습화될수록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불손성 이론 내의 한 가설을 한국어 어미 '-시-'에 대해서 확인해보려는 실험으로, 실험 결과 대체로 친숙도가 높은 문장의 경우 공손하다고 평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은혜(2016)를 비롯한 일련의 실험적 연구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이러한 사물 높임 '-시-'의 문장들을 비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민지혜(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장들을 직접 발화하는 판매원들이 사물 높임 '-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문제점은 제대로 형식화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지 못해, 한국어 화자의 사물 높임 '-시-'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이러한 사물 높임 '-시-'를 어색하다 느낌에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법인지 형식적 실험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수용성 판단 실험을 통해 이들이 사물 높임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려 한다.

2.3 체면 보존 모형과 사물 높임 '-시-'

앞선 실험적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물 높임 '-시-'가 수용적이지 않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수용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물 높임 '-시-'가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면 그 쓰임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화용적 이유에 의해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 해요체나 합쇼체가 비슷한 강도로 상대를 높이는 천장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는(이레호, 2012) 청자를 더욱 높여야 하는 경우에 새로운 종류의 장치가 요구될 것이며, 그것이 사물 높임 '-시-'의 쓰임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자를 더욱 높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능성 중 하나는 이것이 체면 위협을 완화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백수연, 2017; 이수연, 2012).

사물 높임 '-시-'의 쓰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쓰임이 주로 상거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거래 상황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원과 원하는 물건을 독립적으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서로 충돌하며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연(2012)은 상거래 행위가 본질적으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상전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점원의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구매를 권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기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규범적인 사물 높임 '-시-'는 체면 위협 행위로 인한 체면 손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수연(2017)은 담화분석을 통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종류의 담화 사이에서도 체면 위협 행위가 없을 때는 '-시-'가 사용되지 않다가 거절 화행을 통해 체면 위협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물 높임 '-시-'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6) A : 주문 도와드릴까요?

B :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요 큰 사이즈로

A : 큰 사이즈로 3800원입니다, 앞쪽에 서명 한번 해 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B : 네

A :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7) A : 자몽 플랫치노를 따뜻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B : 아뇨 그렇게 안 되세요

A : 아 그럼 자몽 주스랑 아메리카노 주세요

B : 혹시 차가운 거 안 드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A : 네

B : 근데 이것도 냉동이어가지고 차가워요

A : 아 그럼 라떼 따뜻한 걸로 주세요

B : 라떼 따뜻한 걸루요- 아메리카노랑 라떼 따뜻한 거 맞으시죠, 앞쪽에 서명 한번 해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백수연, 2017:43-44)

예를 들어, (6)과 같이 결정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구매자가 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직원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판매 행위와 다르게 고객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사물 높임 '-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판매자가 음료를 따뜻하게 해달라는 구매자의 요청을 거절하여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7)의 대화 상황에서는 사물 높임 '-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시-'를 사용하여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거절 화행과 같은, 체면 위협 행위가 발생하는 화용적 맥락에서는 한국어 화자가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실험에서는 거절 화행에 의한 체면 위협 행위가 맥락으로서 존재하는 경우 사물 높임 '-시-'의 실현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¹⁾ 만약 체면 위협 행위 문맥이 있는 조건과 문맥이 없는 조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용성 차이가 있다면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은 화용적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1: 사물 높임 '-시-'의 수용성 판단 과제

3.1.1 실험 참여자

피험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인 성인 남녀 43명이었으며, 남자 22명, 여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를 20대로 한정된 것은 20대가 카페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업 이용이 많고, 온라인 등의 상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표본 집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가 40대 이상보다 사물 높임 '-시-'를 사용한 표현을 더 자주 접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이창덕, 2013)

3.1.2 사용된 문장 시료

주어 형태와 '-시-' 존재 여부에 따라 6가지의 문장 종류로 실험 조건을 구성하였다. 주어 형태에 따른 세 조건과(높임 주어, 비 높임 주어, 사물 주어) '-시-'의 존재 여부에 따른 두 조건을 조합하여 총 6가지 조건에 따라 실험 문장을 만들었으며, 실험 문장의 예는 (8)과 같다.

(8) a. 높임 주어 문장 조건

1) 실제 수용성 판단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수용성 판단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장 처리 능력이나 유추능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맥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문맥에 의해 수용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Bernardy, Lappin, & Lau, 2018; Keller, 2000; Nagata, 1988; Schütze, 2016; Sprouse, 2007; 이상근, 2017).

- a1. 아침에 회사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 a2. 아침에 회사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 b. 비 높임 주어 문장 조건
 - b1. 건넌방에서 잠들었던 아기가 일어났어요.
 - b2. 건넌방에서 잠들었던 아기가 일어나셨어요.
- c. 사물 주어 문장 조건
 - c1. 아까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 c2. 아까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나오셨어요.

실험문장들은 모두 부사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내포절이 상위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로, '-시-'와 주어의 일치여부는 상위절에서 시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8a)의 경우 상위절의 주어가 높임 자질을 포함하는 '아버지'와 같은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8a)는 서술어에 '-시-'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들이며, 따라서 '-시-'가 서술어에 나타났을 때 수용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들이다. (8b)의 경우 상위절의 주어가 높임 자질을 포함하지 않는 주어이며 따라서 서술어에 '-시-'가 포함되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8c)의 경우 상위절의 주어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 주어 높임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실험 조건 문장들이다. 이 세 조건의 문장들은 각각 다시 '-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들은 모두 해요체로 끝나는 문장으로서, 해요체를 사용한 이유는 문혜심(2009)에 따르면 상행위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대 높임이 합쇼체와 해요체이며, 그 중에서도 해요체가 37.8%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태호, 2012, p. 161 재인용).

3.1.3 문장 자극의 제시

어휘적 차이가 수용성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어휘 항목 구성이 일치하게 하되, 동일한 피험자에게 같은 문장을 제시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장을 만들었다.(조용준, 2015) 따라서 각 조건당 16개의 문장을 만든 뒤, 이것을 라틴방격법(Latin square design)을 이용하여 4개의 리스트에 각각 4개씩 나누어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 리스트에는 총 24개의 실험 문장(조건당 4문장씩 6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실험 문장의 2배인 48개의 채움 문장(filler sentences)을 추가하여 총 72개의 문장을 한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이 72개의 문장은 다시 의사 무작위화(pseudo-randomization) 하였으며, 같은 조건의 문장이 연이어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채움 문장 중 5개의 문장은 연습 문장으로서 맨 앞에 제시하되, 척도상 1점에서 7점 사이에 걸쳐 척도를 시험할 수 있게 하여 고정 효과 항목(anchoring item)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척도 편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Schütze & Sprouse, 2014) 이 연습문장들은 따로 고지하지 않고 실험의 일부로서 제시하였다.

3.1.4 실험 절차

실험은 리커트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를 짝수로 할 것인지 홀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수용성 판단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중간값이 존재하는 연속체(continuum)로서의 측정값임을 가정하고 홀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Bard, Robertson, & Sorace (1996)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수용성을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5단계의 척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7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각 문항에 따라 하나의 문장을 읽고, 등간격으로 제시된 1점부터 7점 사이의 값 중 피험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 중 1점, 4점, 7점 위에는 각각 '매우 부자연스럽다', '보통이다', '매우 자연스럽다'의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행렬식 질문 형태로 피험자에게 제시되었다. 또한 안내문에서 문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점수를 매기되 이미 점수를 매긴 이전 답안을 고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Q1. 문장을 읽고 자연스러운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매우 부자연 스럽다	<--	--	보통 이다	--	-->	매우 자연 스럽다
	1	2	3	4	5	6	7
오늘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았다.	●	●	●	●	●	●	●
나는 학교에서 프린트물이 자주 출력됐다.	●	●	●	●	●	●	●
십년 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	●	●	●	●	●	●
풍경을 무심코 나는 쳐다보았다.	●	●	●	●	●	●	●
진욱이가 책에 읽었다.	●	●	●	●	●	●	●
예전에 같이 학교다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	●	●	●	●	●	●
나는 수업시간에 공책에 낙서를 했다.	●	●	●	●	●	●	●
우진이가 학교에 갈게요	●	●	●	●	●	●	●
가격에 추가 할인이 적용됐어요.	●	●	●	●	●	●	●
나는 오늘 학생용 교통카드를 구입했다.	●	●	●	●	●	●	●

그림 1. 피험자에게 제시된 설문지 예시

3.2 실험 2: 체면 위협 행위에 따른 사물 높임 '-사-'의 수용성 변화

3.2.1 실험 참여자

피험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인 성인 남녀 47명이었으며, 남자 23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2.2 사용된 문장 시료

Face-threatening act(FTA) 문맥 존재 여부와 '-시-' 존재 여부에 따라 4가지 문장 종류로 실험 조건을 구성하였다. 문맥 여부에 따른 두 조건과(비 문맥, FTA 문맥) '-시-'의 존재 여부에 따른 두 조건을 결합하여 총 4가지 조건에 따라 실험 문장을 만들었으며, 실험 문장의 예는 (9)와 같다.

- (9) a. 비 문맥 문장 조건
 - a1. 아까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 a2. 아까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나오셨어요.
- b. FTA 문맥 문장 조건
 - b1. 고객: 이 옷 스몰 사이즈로 주세요.
점원: 매장에 찾으시는 사이즈가 없어요.
 - b2. 고객: 이 옷 스몰 사이즈로 주세요.
점원: 매장에 찾으시는 사이즈가 없으세요.

(9a)의 경우 실험 1에서 사용된 (8c)와 동일한 문장들로 상위절의 주어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 주어 높임의 수용성을 확인한 문장들이다. 반면, (9b)의 경우, FTA 문맥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상대방의 요구나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문장들이며, 동시에 사물 주어를 높이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조건의 문장들은 다시 '-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때, 문맥이 포함된 실험 조건에서는 점원의 발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표기하고 피험자가 이에 대해서만 수용성 판단을 하게 했다.

3.2.3 문장 자극의 제시

각 조건당 16개의 문장을 만든 뒤, 이것을 라틴방격법을 이용하여 4개의 리스트에 각각 4개씩 나누어 제시하였다. 따

라서 한 리스트에는 총 16개의 실험 문장(조건당 4문장씩 4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실험 문장의 3.5배인 56개의 채움 문장을 추가하여 총 72개의 문장을 한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그 밖의 제시 방법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하였다.

3.2.4 실험 설계 및 절차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방법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되, 안내문에서 문맥과 함께 두개 이상의 문장이 제시되는 경우, 밑줄이 그어진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만 수용성 판단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실험 1: 사물 높임 '-시-'의 수용성 판단 과제

실험 후, 각 피험자의 수용성 판단 점수는 척도 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도 편향을 줄이기 위해, 분석하기 전 z-점수 변환을 하여 표준화하였다.(Schütze & Sprouse, 2014)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하였고, 그림 2와 그림 3에는 '-시-'의 주어 일치 위반 효과를 보기 위해 z-점수 변환된 수용성 판단 표준화점수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에 각 조건의 점수와 표준 오차 막대를 제시하였다.

표 1. 표준화된 수용성 판단 점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높임 주어	'-시-' 없음	0.17	0.75	43
	'-시-' 있음	0.60	0.67	43
비 높임 주어	'-시-' 없음	0.65	0.72	43
	'-시-' 있음	-1.16	0.43	43
사물 주어	'-시-' 없음	0.50	0.72	43
	'-시-' 있음	-0.76	0.73	43

기술 통계량을 보면, 높임 자질을 가진 주어가 있을 때는 '-시-'가 없는 경우, 0.17, 있는 경우에 0.60으로 둘 다 양수인 값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이지만, 비 높임 자질을 가진 주어가 있을 때는 '-시-'가 없는 경우 0.65에서, '-시-'가 있는 경우 -1.16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물 주어인 경우에도 비 높임 주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시-'가 없는 경우 0.50에서 '-시-'가 있는 경우 -0.76으로 수용성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험 통사론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의 차이가 아니라 대립쌍의 상대적인 수용성 차이를 비교해보아야 하며, 특히 이 실험과 같은 형태의 2x2 설계의 경우, 통사적 위반 효과는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된다. 즉,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 여부를 통해 '-시-' 자질의 불일치에 의한 통사적 위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의 존재 여부는 그림 2와 그림 3의 그래프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래프 상에서 높임 주어 문장의 선 그래프와 비 높임 주어 문장의 선 그래프가 평행하다면, 비 높임 주어 문장들의 수용성이 매우 낮다 해도 이것은 높임 문장과 비 높임 문장 조건들 간의 차이이지, '-시-'와 주어의 불일치로 인한 위반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와 주어의 불일치로 인한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래프 상에서 두 조건의 선 그래프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기가 달라지거나 서로 교차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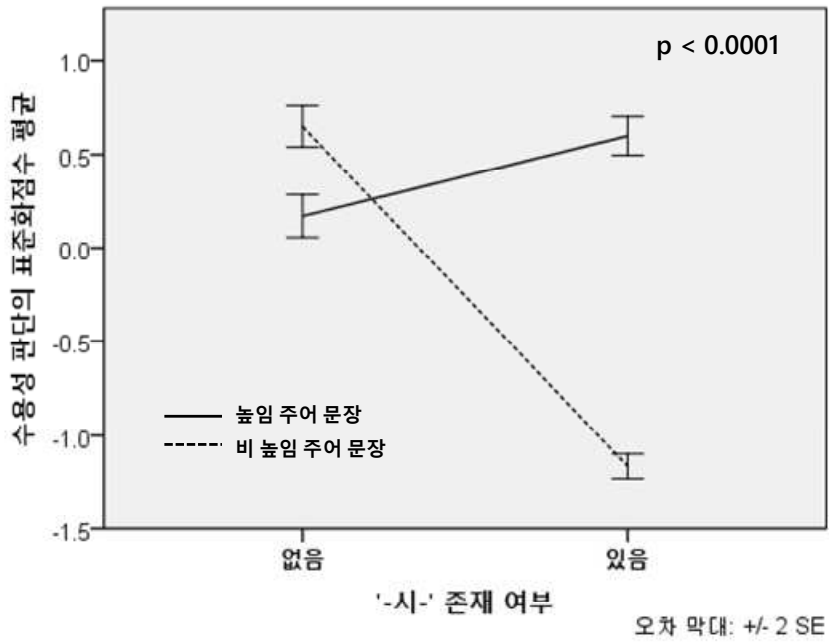


그림 2. 높임 주어 조건과 비 높임 주어 조건의 수용성 판단 비교

그림 2에서 높임 주어 조건과 비 높임 주어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높임 주어 문장과 비 높임 주어 문장 사이에 '-시-' 불일치로 인한 위반 효과가 존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비 높임 주어 문장에 '-시-'를 썼을 때 비문으로 보는 문법성 판정과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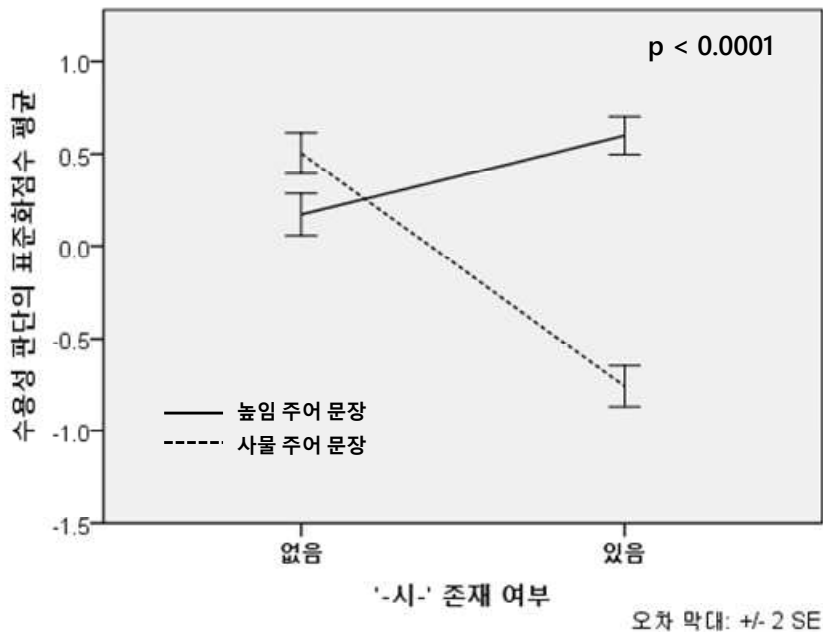


그림 3. 높임 주어 조건과 사물 주어 조건의 수용성 판단 비교

다음으로 그림 3을 보면 그래프 형태 상 마찬가지로 높임 주어 조건과 사물 주어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물 주어 문장에 '-시-'가 쓰이는 것은 주어와 '-시-'의 불일치로 인해 통사적 위반 효과가 존재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피험자'와 '항목(item)'을 무작위 요인(random factor)으로 하고 '주어 유형'과 '주체 높임(-시-)의 존재 여부'를 고정 요인(fixed factor)으로 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행하였다. 각 고정 요인 및 상호작용의 계수(coefficient),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이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높임 주어 조건과 비 높임 주어 조건의 수용성 판단 점수의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

	<i>b</i>	SE	<i>p</i>	95% CI	
절편	-0.07	0.08	0.391	-0.22	0.09
주어 유형	0.24	0.04	0.000**	0.17	0.31
주체 높임	1.55	0.11	0.000**	1.33	1.77
주어 유형 * 주체 높임	-1.12	0.05	0.000**	-1.22	-1.02

p*<0.05 *p*<0.0001

표 3. 높임 주어 조건과 사물 주어 조건의 수용성 판단 점수의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

	<i>b</i>	SE	<i>p</i>	95% CI	
절편	-0.16	0.12	0.162	-0.39	0.06
주어 유형	0.33	0.07	0.000**	0.19	0.48
주체 높임	2.12	0.16	0.000**	1.79	2.44
주어 유형 * 주체 높임	-1.69	0.11	0.000**	-1.90	-1.48

p*<0.05 *p*<0.0001

표 2에 따르면, 높임 주어 조건과 비 높임 주어 조건에서 '주어 유형'과 '주체 높임' 사이에 상호 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b=-1.12, t(687.9)=-22.49, p<0.0001$) 표 3의 높임 주어 조건과 사물 주어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유형'과 '주체 높임' 사이에 상호 작용 효과가 존재한다. ($b=-1.69, t(720.8)=-15.76, p<0.0001$)

실험 결과 사물 높임 '-시-'의 경우 주어와 '-시-'의 높임 자질 불일치에 의한 위반 효과가 존재하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사물 높임 '-시-'를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물 높임 '-시-'를 문법적으로 옳은 것으로 바라보는 논의들(목정수, 2013; 이두원, 2014)이나 언중이 이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곽숙영, 2009; 이창덕, 2013)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정수(2013)의 경우 '-시-'의 청자 높임이라 보았던 현상에 대해서 주어 높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사물 높임 '-시-'의 쓰임들을 언중들이 실제로는 그것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두원(2014)의 경우, 사물 높임 '-시-'가 무생물 주어와 존칭자질 일치를 이루어 청자 존칭의 정중성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화자들에 대한 수용성 판단 결과는 한국어 화자들이 사물 높임 '-시-'를 수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통사적 위반 효과가 존재하므로 사물 높임 '-시-'는 주어를 높이는 현상이 아닌 다른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창덕(2013)이나 곽숙영(2009)의 분석처럼 한국어 화자들이 사물 높임 '-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민지혜(2014)나 김은혜(2016) 등 기존의 수용성 판단 실험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화자들이 이를 비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수용성 판단에 관한 기존의 실험적 연구들은 비록 실험 설계나 형식성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본 논문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2 실험 2: 체면 위협 행위에 따른 사물 높임 '-사-'의 수용성 변화

실험 후, 각 피험자의 수용성 판단 점수는 척도 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도 편향을 줄이기 위해, 분석하기 전 z-점 수 변환을 하여 표준화하였다.(Schütze & Sprouse, 2014)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표 4에 제시하였고, 그림 4에는 FTA

문맥 제시에 의한 효과를 보기 위해 z-점수 변환된 수용성 판단 표준화점수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에 각 조건의 점수와 표준 오차 막대를 제시하였다.

표 4. 표준화된 수용성 판단 점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문맥 없음	'-시-' 없음	0.56	0.80	47
	'-시-' 있음	-0.76	0.87	47
FTA 문맥	'-시-' 없음	0.46	0.80	47
	'-시-' 있음	-0.26	0.74	47

기술 통계량을 보면, 문맥이 없는 사물 주어 높임의 경우, 앞선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시-'가 없는 경우 0.56에서, '-시-'가 있는 경우 -0.76으로 수용성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FTA 문맥이 함께 제시된 문장 조건의 경우, '-시-'가 없는 경우 0.46에서 '-시-'가 있는 경우 -0.26으로 수용성이 감소하였지만, 수용성이 감소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실험에서 이야기했듯, 실험 통사론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의 차이가 아니라 대립쌍의 상대적인 수용성 차이를 비교해보아야 하며, 특히 이 실험과 같은 형태의 2x2 설계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문맥 차이에 의한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비 문맥 조건과 FTA 문맥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둘 사이에 FTA 문맥에 의한 효과가 존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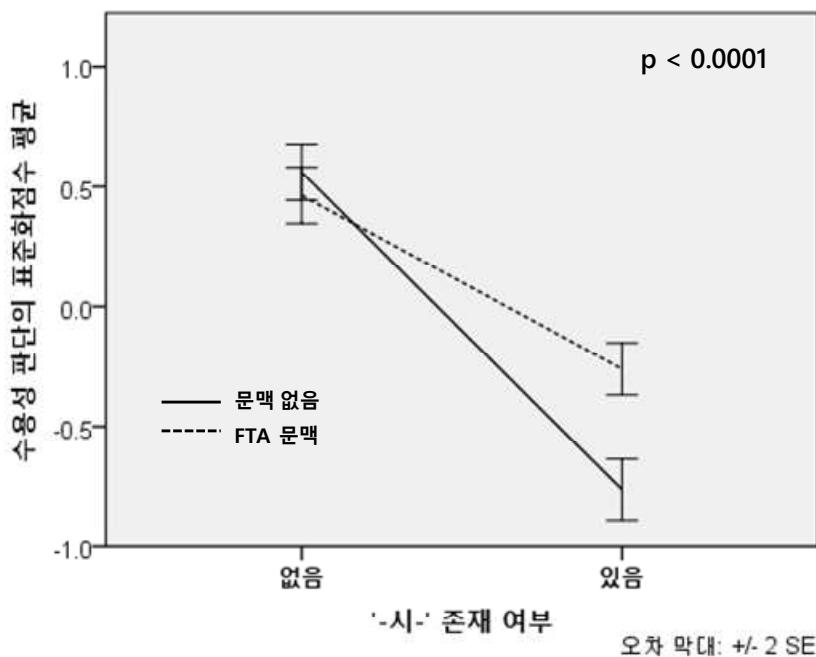


그림 4. 표준화된 수용성 판단 점수 평균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피험자'와 '항목'을 무작위 요인으로 하고 '문맥(FTA 문맥 존재 여부)'와 '주체 높임('-시-'의 존재 여부)'를 고정 요인으로 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행하였다. 각 고정 요인 및 상호작용의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이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수용성 판단 점수의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

	<i>b</i>	SE	<i>p</i>	95% CI	
절편	0.56	0.06	0.000**	0.45	0.67
문맥	-0.10	0.08	0.223	-0.25	0.06
주체 높임	-1.32	0.08	0.000**	-1.48	-1.16
문맥 * 주체 높임	0.60	0.12	0.000**	0.37	0.83

* $p < 0.05$ ** $p < 0.0001$

표 5에 따르면, '문맥'과 '주체 높임' 사이에 상호 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b=0.60$, $t(767.0)=5.17$, $p < 0.0001$) 이는 FTA 문맥이 존재하는 경우 사물 높임 '-시-'의 낮은 수용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물 높임 '-시-'가 체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쓰이는 경우, 한국어 화자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백수연(2017)의 담화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문맥이 존재하지 않는 사물 높임 '-시-'에 대해서 낮은 수용성을 보인 것에 비해, 거절 문맥에서는 '-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FTA를 완화하려는 공손 효과가 수용성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은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상대의 체면을 보존하기 위해 더 공손한 표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어에 더 높은 청자 높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물 높임 '-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위 백화점 높임법이라 불리는 '-시-'의 비규범적 사용에 대해 실험통사론의 형식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수용성 판단을 살펴보았다. 우선 고객 응대 상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물 높임 '-시-'를 사용한 문장들을 선정하여, '-시-'를 사용한 정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수용성 판단을 살펴보았고, 수용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화용적 맥락을 사용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사물 높임 '-시-'의 쓰임에 대해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형식적인 실험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사물 주어라 부르는, 높임 자질이 없는 주어가 쓰인 문장에 '-시-'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분석에 따르면 문법적으로 옳지 않으며, 따라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들의 '-시-'에 대한 언어습관을 교화하려는 규범적인 움직임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상황주체(이정복, 2006, 2010)나 청자 높임으로의 화용적 확산(박석준, 2002, 2004; 이래호, 2012; 이수연, 2012; 이숙의, 2015)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반박하며 통사론적 분석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목정수, 2013; 이두원, 2014) 또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실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나, 기존의 몇몇 실험적 연구에서는 형식화되지 못한 실험으로 인해 검증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hütze & Sprouse(2014)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물 높임 '-시-'의 쓰임에 대한 한국인 화자의 판단을 살펴보았으며,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적인 '-시-'의 쓰임을 사물 높임 '-시-'의 쓰임과 비교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사물 높임 '-시-'가 쓰인 문장에서는 '-시-'에 의한 통사적 위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통사론적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인 화자들에게는 사물 높임 '-시-'가 문법적이지 않은 요소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물 높임 '-시-'가 통사적 위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수연(2012)의 분석과 같이 체면 위협과 같은 화용론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물 높임 '-시-'를 사용한 문장 조건들을 비교하되, 체면 위협 행위(FTA) 문맥의 존재여부를 달리하여 수용성 판단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화용적 문맥에 의한 효과가 존재하며, 사물 높임 '-시-'에 의한 수용성 감소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이 화용적 확산에 의한 쓰임이자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형식적 실험을 통해 한국인 화자의 사물 높임 '-시-'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문맥이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전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문맥이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했지만, 문맥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Sprouse, 2007) 또한 존재하였으며, 본 실험과 같이 화용적 조건을 문맥적 변인으로 한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추가적 실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이정복(2006)에서도 지적되었듯 경어법과 관련된 현상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이와 같은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나이의 경우 예비실험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실험의 한계로 인해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표본이 전체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은혜. (2016). 한국어 선어말 어미 '-시-'의 사물 존재 기능. *사회언어학*, 24(1), 91-113.
- 목정수. (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재. *국어학*, 67, 63-105.
- 민지혜. (2014). '-시-'의 확대 사용 양상에 대한 문법 교육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석준. (2002).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석준. (2004).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외적 용법에 관하여. *한말연구*, 14, 201-220.
- 백수연. (2017). 한국어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공손 전략과 그 유용적 확장: 판매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두원. (2014). 영어의 청자존칭을 통해 본 사물주체존칭. *인문과학연구*, 42, 201-223.
- 이래호. (2012). 선어말 어미 '-시-'의 청자 존재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 23, 147-166.
- 이상근. (2017). 실험통사론의 형식적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생성문법연구*, 27(2), 395-429.
- 이수연. (2012).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 *어문연구*, 71, 79-97.
- 이숙의. (2015).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 대하여. *한국어학*, 66, 215-244.
- 이정복. (1996). 국어 경어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사회언어학*, 4(1), 51-81.
- 이정복. (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407-448.
- 이정복. (2010).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
- 이창덕. (2013). 현대 국어 비인칭 존재 현상과 그 교육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한국초등국어교육*, 53, 275-299.
- 임홍빈. (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287-336.
- 조용준. (2015).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모색*.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홍종선, 박숙영, 권용문, 문혜심, 이은희. (2009).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국어 문법의 탐구 2*. 서울: 박문사.
- Bard, E. G., Robertson, D., & Sorace, A. (1996). Magnitude estimation of linguistic acceptability. *Language*, 72(1), 32-68.
- Bernardy, J.-P., Lappin, S., & Lau, J. H. (2018). The influence of context on sentence acceptability judgements. *Proceedings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2: Short Papers), 456-461
- Keller, F. (2000). *Gradience in grammar: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spects of degrees of grammatic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Nagata, H. (1988). The relativity of linguistic intuition: The effect of repetition on grammaticality judgment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7(1), 1-17.
- Schütze, C. T., & Sprouse, J. (2014). Judgment data. In D. Sharma & R. J. Podesva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pp. 2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ütze, C. T. (2016). *The empirical base of linguistics: Grammaticality judgments and linguistic methodology*.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Sprouse, J. (2007). *A program for experimental syntax: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bility and grammatical knowled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최성화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인지과학과 대학원생

이메일: shchoi707@gmail.com

Received on October 29,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9, 2019

Accepted on December 25, 2019